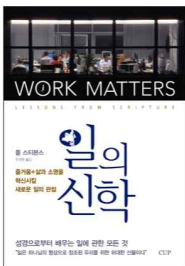




다섯번째 이야기

일의 신학

[문화기행① 서평]



『일의 신학』의 저자 폴 스티븐슨은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을 바탕으로 성경 속의 인물들이 어떻게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했으며,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일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저주의 대가로 노동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책을 접하게 되었지만 책을 읽어가다 과정에서 저자는 일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을 흉내 내며 닮아간다고 표현한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또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여 ‘앞으로 올, 그리고 지금 임재해 있는 낙원에도 노동은 존재한다’라고 언급하여 나의 노동관에 대해 커다란 도전을 주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은퇴가 없고, 영생을 얻은 뒤에도 일이 여전히 부여된다는 점은 나에게 사고의 전환을 던져주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명령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관계 중심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듯이 우리도 일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좀 더 편하게 일하고,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일의 가치를 훼손시키려 했던 나의 노동관에 대해 커다란 반성을 하는 기회가 되어 유익했다.



직업이란 노동의 매개 또는 경제적 이익만을 구가하는 통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일을 세상 가운데 투영시키는 통로라는 점은 큰 개념적 전환을 제시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일을 전개할 때 최고의 기쁨을 구가할 수 있다는 작가의 주장에 큰 의미를 던졌다. 칼 바르트가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그 뜻과 예비해 놓으신 처소를 묵상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과 영성 개발이 동일선상에 있다는 숨겨진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

일의 전개 과정에서 우리가 화를 발하는 것은 중요한 진단 도구라는 저자의 주장은 또 다른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즉, 일의 수행과정에서 화가 난다면 우리 안에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이며, 요나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분노를 냈던 것은 그의 미성숙한 상상력에 따른 자연스러운 발현이었으며, 소명이 꽃을 피우지 못했다는 저자의 분석은 업무 진행 과정에서 비합리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화를 일삼아왔던 나의 일에 대한 자세에 커다란 반성이 되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는 일은 모든 선한 일의 원형일 것이다. 우리가 현세에서 흘리는 땀과 불만 없이 하는 일일 것이며, 우리가 하고 싶었으나 이 세상에서 시간이나 기회가 없어서 못 해 본 것일

것이다. 일에 대한 개인적인 만족감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것은 지금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 하게 될 일에 대한 전초적 연습이라는 점에서 다시금 의욕을 가지고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 삶 속에서 어떠한 소명으로 나타나며,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았다. 인간의 죄성으로 본래의 아름다운 본질적 의미가 경쟁심과 책임회피로 퇴색되었다는 점이다.

『일의 신학』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삶을 살며, 동시에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꾀하고자 분투하는 나에게 관점의 전환을 주는 중요한 매개체였다. 직장 속에서 맞닥뜨리는 환경이 내가 이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 속에 녹아 있는 일의 속성과 일터 안에서 혼재된 요소들을 받아들이는 나의 시각과 관점의 전환은 근로의욕과 노동을 통해 기대하는 바를 생기게 하였다.

10월 중순, 15년 조금 못 미치는 아시아나항공에서의 직장생활을 마치고 내가 걸어왔던 약 15년간 경력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내가 얻었던 것 보다는 왠지 잃은 것이 많다는 생각이 불현듯 찾아왔다. 물론 그 과정에서 승진도 했고, 연봉도 오르고, 좀 특이하게 경력사원 중에서 해외 근무 경험을 5년 반 동안 할 수 있는 호사(?)를 누렸음에도 본질적으로 직장 가운데서 소명 의식을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살지 않았다는 큰 상실감과 잠깐이지만 방향성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책은 나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다. 내가 투여했던 열정과 시간도 내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이 부재한다면 또 다른 상실감을 맞이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자각이 이 책을 들게 하였고, 새롭게 임하고 있는 직장 에서 그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정진해 나가고픈 소망을 가지게 하였다.

[글쓴이 정재환 집사]



2001년 갈라디아서를 시작으로 BEE와 처음 인연을 맺고 2005년 8월 그리스도인의 삶 수료 후 정식 BEE 식구가 되었다. 2012년 7월 FT로 FTS 과정을 섬기었으며, 2015년 인도네시아 메단으로 FTS 과정 아웃리치를 다녀오면서 BEE 사역을 평생 사역으로 깨닫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다. BEE 해외선교본부와 OBC 팀장을 섬기고 있다.

[정리 김종영 편집 최선]

BEE 소식

1. 2023년 “빛진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빛진 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자제 있는 자나

여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롬1:14).”

2. '하나님의 메신저' 전 BEE World 대표이셨던 알 브릿지 선교사님의 세미나가 있습니다.

4월 20일-21일 저녁7:00-9:30,

4월 22일 오전10:00-12:00

문의는 BEE사무실 Tel 02-822-9480



monotoon [모놀로그 in 바이블]

김수경 작가의 모노톤 일러스트와 함께 시간순으로 읽는
성경 인물들의 생생한 독백을 정주행하며 신약성경 차례대로
통독하고 묵상하는 시간!

그것이
베테스다 못의
실체였다

베테스다 못의 38년 된 병자

나는 멍하니
수면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대답했다.
"나를 들어다가
저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용을 써도
항상 남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천사가 물을 휘젓는 일은
한 달에 드물게 두세 번.
꿀꺽꿀꺽 물이 끓어오르고
더운 물안개가 자욱해지면
이곳의 병자들은 순식간에
동료에서 경쟁자로 돌변한다.

누군가 병이 다 나아서
이제 안 나온다는 말이 돌면
뜨거운 패배감과
살벌한 시기심에 무겁게 가라앉는 곳.

그 나뭇잎은
자리를 건어서 걸어가려 했을 때,
나는 예초에 아팠던 적 없는 사람처럼
예사롭게 일어났다.

관절을 굽히고 땀 때마다
외마디 비명을 지르던 나였음을
뒤늦게 깨닫고 돌아봤을 때
은인은 이미 보이지 않았고,

대신 몇 사람이 미간을 찌푸리며
나를 불러 세웠다.
"오늘은 안식일인데
왜 물건을 들고 가는 거요?"

나는 베테스다 토박이.
저들은 날 모를 리 없는 관리들이다.
그런데 오랜 병에서 벗어난
나를 보자마자 한다는 말이
축하는지 냉
'안식일에 그러면 안 됩니다.'라니...

이름 모를 은인은
내 굴곡진 세월을 먼저 보여주던데,
신심 깊은 저들 눈에
난 그저 율법 위반자일 뿐인가.

땀 뚫어 기쁜 날인데
모르게 불쾌한 안식일이다.

출처 https://instagram.com/monotoon_kimsookyun